

회 원 사 소 식

♣ 한국무역정보통신, 창립 1주년

국내 EDI도입을 선도해온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김은상)이 6월 12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90년 4월 무역협회안에 종합무역자동화사업추진단으로 출발하여 지난해 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독립하고 동년 6월 12일 현재의 상호로 바뀌면서 그동안 국내에 EDI 도입을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지난해 11월 19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여 최근에는 금융전산망과 연결하기로 금융결제원과 합의하고 정식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관세청으로부터 EDI표준 전자문서를 공식문서로 인정받음에 따라 EDI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포스데이타, 경영전략 개편단행

포스데이타는 경영전략을 매출중심에서 이익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포스데이타가 기업변신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 수립한 경영개선계획은 크게 *매출 지향에서 이익 중심으로 *분산투자에서 집중투자자로 *경쟁시대에서 협력시대로 등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대외사업전략으로는 중소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하고 국민복지망 등 공

공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하드웨어의 단순 시스템재판매 사업을 포기하고 PC생산도 중단,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내사업으로 포철그룹의 시스템관리 부문을 모두 인수하는 한편 대외사업 축소로 생긴 여유인력을 컨설팅 등 요소기술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전략부문에서는 매출신장보다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내실화를 꾀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계층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주 용역회사도 전문화하고 요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단순외주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협력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 삼성데이터시스템, 지역정보센터 구축

SDS는 지난해 과천정보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창원지역의 삼성계열사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창원정보네트워크센터」를 설립, 5월 10일 개관식을 가졌다.

SDS는이와함께 올해안에 경인지역 그룹사의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해 수원정보센터도 설립, 지역정보센터를 모두 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정보원, 「산업기술 정보관리 종합대책」마련 촉구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도입 및 기업간 기

술교류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정보센터」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기술정보원은 “우리나라 산업기술 정보활동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기업들의 기술도입 실적 가운데 약 58%만이 신기술이며 이 중에도 중복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폐단은 도입기술을 체계적으로 수

집,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 「기술이전정보센터」를 설립해 기술도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정보원은 또한 해외기술정보의 한글DB화 및 우리 기술정보를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정보의 영문DB화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원고를 모집합니다

『DB』 세계로 -

『DB월드』는 독자 여러분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 독자들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모두의 「광장」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원고내용

- ▶ DB관련 신기술 및 동향 논문
- ▶ DB관련 정책건의 및 의견문
- ▶ 기타(시, 소설, 수필, 만화등 소재 제한 없음)

2. 보내실 곳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DB월드』 담당자
(100-756)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 2층

3. 기 타

-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가능하면 필자의 사진 1매와 약력, 전화번호를 첨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접수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